

광주비엔날레 '부끄러운 관람문화'

개막 사흘만에 작품 4점 훼손

07
연예스포츠
08

지난 5일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 이후 불과 사흘만에 전시 작품 4점이 훼손되는 등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지 않은 관람문화로 '문화수도' 광주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작품은 바람에 휘날리게 기획됐지만 추가 파손이 우려돼 임시 비닐 가림막을 설치해 고정하는 등 작가의 창작 의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람객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해 관람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에 따르면 지난 5일 개막식 참석자 1천700여명이 한꺼번에 비엔날레 전시관으로 몰리는 바람에 일부 작품이 관람객들에 의해 밟혔고, 다음날 오후 3시에 제1전시관에 설치된 가오루 아리마(Kaoru Arima·일본)의 '무제' 4점 일부가 찢어진 채 발견됐다. 재단측은 작품 훼손이 잇따르자 6일 오후 비닐 가림막으로 신문을 덮는 긴급 보수 공사를 했다.

또 제1전시관에 설치된 돌로레스 지나·후안 마이다간의 작품 '광주의 모형', 제3전시관의 시슬레이 자파의 '갈린', 제2전시관 한스 하케의 '넓고 하얀 흐름' 등 바닥에 설치된 작품들도 일부 관람객들이 만지고, 무심코 밟는 바람

에 간이 차단 펜스가 설치됐다. 재단 관계자는 "해외 유명 미술가들이 '최고의 비엔날레'로 평가하는 등 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관람객들의 성숙한 관람문화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광주비엔날레가 국제 수준으로 향상됐다고 하지만 관람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이번 비엔날레는 5개 전시관으로 이뤄져 장시간 관람을 해야 하지만 중간

휴식을 위한 의자가 부족했고, 화장실도 관람객을 수용하기에 부족했다. 화장실의 경우 5개 전시관 중 단 한군데만 설치돼 있었다.

특히 밀폐된 영상작품 전시공간의 경우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페인트 냄새 등 악취로 시민들이 고통을 겪었다.

최미형(50·광주시 남구 월산동)씨는 "커피를 제치고 안에 들어가는 순간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두

통 때문에 나와야만 했다"며 "의자나 화장실 등 관객을 배려하는 시설이 매우 열악했다"고 말했다.

비엔날레 관계자는 "의자와 화장실의 경우 전시실 내부에 많이 설치할 경우 관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게 배치했다"며 "환기문제는 작품 설치기간이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페인트 냄새 등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강필상 기자 kroh@



2008 광주비엔날레 개막 후 휴일인 7일 관람객들이 비엔날레 제1전시관에 설치된 메튜 모나한의 작품 '모카 포커스(MOCA Focus)'를 신기한 듯 감상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일부 작가 "나이트클럽서 예술적 영감 받아"

비엔날레 이모저모

가족·단체 관람객 많아

○개막 후 첫 주말과 휴일인 6~7일 광주비엔날레에는 가족단위 관람객과 단체관람객 등 1만여명이 찾아 축제 분위기를 연출.

휴일을 맞아 가족들과 비엔날레로 나들이를 나온 관람객들은 작품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을 찍고 다채로운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운 한때. 또 테마공원에서 열린 '관람객들의 이정표 보고서' 등 시민참여 행사에도 관람객들이 몰려 관람 후기를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등 북새통을 이루기도.

오쿠이감독 깜짝 퍼포먼스

○오쿠이 에위저 예술감독이 지난 6일 이례적으로 관람객을 위한 깜짝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 광주비엔날레를 총지휘하는 감독이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오쿠이 감독은 이날 오후 광주비엔날레 제5전시관에서 펼쳐진 '전쟁 사전(Dictionary of War)'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퍼포먼스를 공개.

신개념 행위예술 그룹인 '오일21'이 진행하는 '전쟁사전'은 참가 예술가가 직접 고른 단어를 주제로 하는 퍼포먼스로, 오쿠이 감독은 이슬람교의 '성전'이라는 뜻인 '지하드'를 선정, 세계 분쟁지역의 사진을 배경으로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사회자와의 대담 형식으로 관람객들에게 전달.

"광주의 열정에 반했어요"

○이번 비엔날레에 참여한 일부 작가들이 광주의 역동적인(?) 나이트클럽 분위기에 매료돼 밤만 되면 속소를 떠나 새벽녘이 돼야 돌아오고 있다고.

개막식이 열린 지난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펼쳐진 재단 색션 출품작인 클레어 탄콘스(미국)의 '봄' 퍼포먼스가 끝난 밤 10시경 행사를 함께한 비엔날레 참여자가 10여명이 소리가 사라졌는데 알고보니 광주지역 노 나이트클럽을 찾아가겠다는 것.

이들 작가들은 "광주 시민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춰 예술적 영감을 준다"고 평가. 입소문을 들은 오쿠이 감독도 "우리도 한 번 가보자"며 재단 직원들을 부추기고 있다는 후문.

대인시장 덩달아 활기

○재단 색션의 '북덕방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이 연일 시민들의 발길로 때어난 호황. 지난달 18일부터 빈 점포의 셔터 등에 베이징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의 경기 모습과 흉터를 소재로 한 작품 등이 설치되자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3배 이상 늘었다는 것.

생선가게 주인 유양례(여·65)씨는 "예술과 시장이 맞지 않은 조합인 줄 알았는데 작품을 보면서 일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웃음.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

자회사 직원 등 용의자 4명 검거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1천1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용의자들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회사 직원과 유출 정보를 최초로 언론에 알린 제보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GS칼텍스의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정모(28)씨, 정씨의 고교 동창 왕모(28·회사원)씨, 그리고 왕씨의 후배 김모(24)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잡아 조사 중이며 조판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 등이 빼낸 고객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의 자회사 여직원 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김씨는 GS칼텍스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대량 유통했다는 소식이 알려질 경우 고객정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해 직접 기자들과 접촉해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빼낸 고객정보를 실제 시중에 유통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출자 뒷골목에서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 등을 포함한 1천100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CD 1장과 DVD 1장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598) 김장동



토플 인터넷 접속 대란

응시생 대다수 시험 못 봐

지난 6일 오전 10시 전담대, 목포대 등 전국 50여 대학에서 일제히 치러진 IBT(Internet-based Test·인터넷 기반) 토플이 접속장애로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일부 고사장에서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했던 적은 있었지만, 이날처럼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는 처음이다. 시험을 주관한 ETS 한국지사는 "이번 사태는 출제

기관 미국 교육평가원(ETS)의 서버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는 환불이나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플 관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는 이날 시험장에서 난관을 본 응시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한 네티즌은 "한 시간 걸려 고사장까지 갔는데 두 시간 동안 대기 화면만 쳐다봤다. 위약금을 물어라"고 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그냥 다시 PBT(종이시험)로 바꿔라. 이따 토플 시험을 제대로 못 보겠다"고 했다. /정성필기자 camus@연합뉴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만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방 : 061) 337-0571

양식장 어망에 걸려 요트대회 지연

○전국 요트 대회에 참가한 요트들이 대회장 인근 양식장 어망과 스티로폼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등 경기가 한동안 지연되는 해프닝이 연출.

○7일 전남요트협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여수시 소호동 요트경기장 앞바다에서 열린 제22회 전국 시·도 대학 요트대회에 출전한 수백 척의 요트가 대회가 진행될 예정인 요트경기장 앞 해상에서 보드 빨리 도착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일부 요트들이 혼합 양식장으로 잘못 진입하면서 발생.

○이 때문에 대회 주최 측은 양식장 걸린 요트를 안전구역으로 빼내느라 진땀을 뺐으며, 레이스 경기가 2시간 가량 지연.

○대회 관계자들은 "전국에서 온 출전선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트 전문경기장으로서의 면모가 크게 훼손됐다"고 아쉬움을 표시.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성폭행 촬영 협박 40대 검거

완도경찰은 혼자서 집을 보던 여성들을 성폭행한 신모(40)씨를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불잡아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3시에 완도군 A(여·31)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로 A씨의 알몸을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거나 알리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29일 새벽에도 완도군 B(여·22)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같은 범죄를 저지른 뒤 B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저금기에서 19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달 8월부터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나주호 빙어 수백마리 폐죽음

나주호에서 빙어 수백 마리가 폐죽음을 당해 나주시 당국이 원인 조사에 나섰다.

지난 6일 오전 나주시 남평읍 나주호 J리조트 인근에서 빙어 수백 마리가 죽은 채 떠있던 것을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나주시는 곧바로 수거작업을 벌여 죽은 빙어 10kg 이상을 회수했다.

시 관계자는 "수온에 민감한 빙어들이 저수율(53%)이 낮아지면서 올라간 수온의 영향으로 폐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며 "인근의 리조트와 골프장이 있는 만큼 다른 오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최승철기자 srchoi@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더